

소비자 83% 유통기한 잘못인식

「판매가능」을 「섭취가능」으로 오해 구입기피·조기폐기 자원만 낭비 보건사회연구원 소비자 인식조사

우리나라의 식품유통기한은 판매가능 기한의 개념인데도 대다수 소비자들이 이를 섭취가능 기한으로 오해하여 구입을 기피하거나 조기 폐기함으로써 귀중한 자원을 낭비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정보산업연구소 정기혜 책임연구원이 서울에 거주하는 소비자 3백명을 대상으로 식품의 유통기한에 관한 의식조사를 실시한 결과 83.3%가 식품유통기한을 섭취가능기한으로 잘못 알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고 밝혔다.

더욱이 5.0%에 해당하는 15명은 유통기한을 아예 폐기해야 하는 기한으로 오인하고 있었으며 판매가능 기한으로 정확히 알고 있는 사람은 불과 11.7% 뿐이라고 했다.

이에 따라 유통기한이 구매일 일지라도 제품의 품질면에서 문제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조사대상자의 95.0%가 구매하지 않겠다고 응답했다.

또한 구매후 가정에서 유통기한이 초과된 제품에 대해서는 55%가 버리거나 유제품같은 경우 청소 또는 맛사지용으로

사용한다고 대답했다.

특히 냉동식품의 경우 적정 보관온도가 유지된 저온유통시 통상 제조일에서 1년간 유통이 가능한데도 조사대상 소비자의 22.7%가 냉동식품류의 유통기한이 없다거나 잘 모른다고 응답, 안전성면에서 문제점이 도사리고 있는 것으로 지적했다.

이 조사결과와 관련, 정 연구원은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한

정부나 관련단체들의 식품 유통 기한에 관한 교육·홍보 프로그램 마련이 요구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선입선출의 효율성을 제고해 식품의 안전성을 유지하고 유통기한 초과에 따른 제품의 폐기를 막기 위해서는 일본 등 선진국처럼 유통기한이 적게 남은 제품부터 구매하는 태도를 습관화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월간 양봉계」 창간 30돐 행사

우리 한국의 양봉업계 대표적이고 유일한 양봉잡지 「월간 양봉계」(발행인 신필교)의 창간 30주년을 기념하는 행사가 3월 25일 대구시 그랜드호텔 5층 프라자홀에서 열린다.

이날 기념행사와 더불어 학술 발표회도 있는데 발표연제는 아시아양봉협회 회장인 酒井哲夫(일본 다마가와(玉川)대학 교수 역임) 박사는 「일본양봉과 아시아양봉의 급후의 전망」을 발표하고 서울대학교 우건석 박사(양봉과학연구소 소장)는 「한국에 있어서의 꿀벌질병」에 대해서 발표할 예정이다.

월간양봉계 잡지는 1967년 4월에 고 신장환 선생께서 「전

국토의 밀원화와 양봉의 근대화」의 가치를 내걸고 창간을 본지 현재까지 3월호로 통권제 360호의 지령 30년을 채우게 되었다. 월간 양봉계지는 창간후 30년 동안 양봉업계의 험란한 길을 같이 해오면서 결간없이 잡지를 꾸준히 발간해 왔다는 것은 우리 양봉업계 발전을 가속화시키는데 큰 역할을 담당해 왔다는 것을 증명한다.

이 잡지의 창간연도 출범 당시의 발자취를 잠깐 더듬어 본다면 창간호(1967. 4. 1 발행, 동아양봉원내)에서 현재 잡지크기 68면 발행, 지대(구독료)는 50원(반년분 300원, 1년분 500원)이었고, 발행·편집인은 신장환(작고), 주간은 정도영(작고), 편집위원들에는 김병호(진주농대 교수), 김상철(국립축산시험장 경주지장장), 박만주(전업양봉가), 신종식(〃), 우재봉(〃, 작고), 이창수(왕유연구

가), 임경빈 박사(서울대농대 교수), 최승윤 박사(〃, 작고) 등이다.

창간호에서는 △옹봉저생산 △로알제리생산 △봉침요법을 특집으로 다뤘으며, 8월호에서는 △꿀벌의 인공수정 △꿀벌의 부저병을 다룬게 특징이며 9월호의 권두사에서는 「한국양봉협회(가칭) 발기를 촉구한다」를 제창하고 나선것이 관심을 끈다. 11월호에서는 「양봉진흥법이란 어떤것인가」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일본의 양봉진흥법을 소개하면서 우리도 양봉진흥법 제정의 필요성을 거론한 것이 특징이다.

동 잡지는 고 신장환 선생께서 1994년 2월 생전까지 발행인을 맡아 오다가 그후로는 현재의 신필교 동아양봉원 원장이 선친의 유업을 이어받아 오늘에 이르고 있다.

농산물 수출입 동향 수입 중국부상, 수출 러시아 호조

농림산물 수출입의 국가별 순위가 바뀌고 있다.

농림부가 조사한 지난해 농림산물 수출입 동향을 분석해 보면 수입부문에서 미국이 전체 물량의 36.1%(39억5천만 달러 :한화 3조9천5백만원)로 95년에 이어 1위를 고수한 반면 4위에

머물던 중국이 8억1천9백만 달러(한화 6천5백52만 원)로 2위에 올라섰다.

대신 5위였던 호주가 4위로 자리바꿈한 반면 2·3위를 차지했던 원목수출국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가 각각 3위와 5위로 내려앉았다. 이밖에 뉴질랜드는 6위, 브라질은 7위, 대만 8위, 캐나다 9위, 인도가 10위를 각각 기록했다.

한편 수출부문에서는 돼지고기가 주요 수입품인 일본이 전

체 45.2%인 8억2천4백만달러(6천5백92억 원)로 1위를 고수한 반면 2위였던 홍콩이 3위로 밀려나고 러시아가 2위로 올라섰다.

또 5위였던 미국 역시 4위로 올라선 반면 중국은 5위로 밀려났다. 이밖에 인도네시아가 7위로, 순위에 없던 사우디아라비아, 네델란드, 싱가포르가 8~10위를 각각 차지했다.

한편 지난해 농림수산물 수출은 18억3천만 달러(한화 1조4천6백40억 원)인 반면 수입은 1백9억4천만 달러(한화 8조7천5백20억 원)로 심각한 무역역조 현상을 나타낸 것으로 농림부는 최종 집계했다.

수입동향 (단위=백만\$, %)

국별	'95		'96	
	수입액	순위	수입액	순위
농림산물	9,677 (100.0)		10,940.0 (100.0)	
미국	3,509	1	3,950	1
중국	637	4	819	2
인도네시아	706	2	722	3
호주	624	5	670	4
말레이시아	671	3	584	5
뉴질랜드	463	6	467	6
브라질	220	9	369	7
타일랜드	238	7	347	8
캐나다	227	8	308	9
인도	119	-	284	10

수출동향 (단위=백만\$, %)

국별	'95		'96	
	수출액	순위	수출액	순위
농림산물	1,747		1,829	
일본	845	1	824	1
러시아연방	149	3	245	2
홍콩	212	2	211	3
미국	95	5	107	4
중국	95	4	88	5
대만	80	6	71	6
인도네시아	27	7	35	7
사우디아라비아	11	-	19	8
네델란드	22	-	19	8
싱가포르	14	-	15	10

회비 및 벌꿀검사로 변경에 관한 안내 말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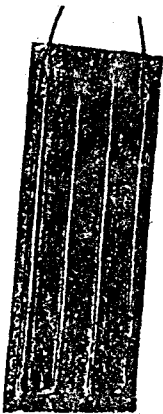
지난 2월18일 제24차 정기총회에서 확정된 사업계획에 의거, '97년 올해 회비 및 벌꿀품질검사 관련 회비기준이 아래와 같이 일부 변경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회원 여러분께서 양봉경영에 어려움이 많은 것과 같이 우리 협회도 재정형편이 예전과 같지 않은 상황에서 연회비 인상 등은 불가피한 조치였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양봉업계 발전을 앞당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양봉협회 조직 활성화 여부에 달려있으므로 모든 회원님의 동참을 호소합니다. 아울러 우리 직원들도 협회 건축예산 운영에 적극 동참키 위하여 작년까지 14명의 직원(사무국·양봉연구소)으로 운영되던 것을 올해 2명이 퇴직, 앞으로도 충원 없이 12명 직원으로 협회 모든 업무를 그대로 수행할 예정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업무의 효율성 개선이 반드시 뒤따라야 하기 때문에 잠시동안은 여러분의 기대에 미치지 못할 경우가 있더라도 정상패도에 오를 때까지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회비구분	금액	기준	비고
회원의 연회비	60,000원	당년말까지 1회납부 본회 40,000+지회 20,000원	변경
회원벌꿀 1차 벌꿀검사	15,000원	이성화당 한 항목만 제외	신설
벌꿀규격기준 품질검사	25,000원	식품공전 벌꿀규격기준	전과동
항생제 단일검사	30,000원	항생제 단일(1항목) (출장 불인시는 35,000원)	전과동

신제품 용수전열판 판매개시

아카시아에서 다수확생산은 물론, 증봉생산이나 불철 냉해 피해와 석고병을 막기 위한 신제품

- 일찍 산란을 많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외역 봉을 많이 만들 수 있어 아카시아에서 다수확 채밀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기구이다.
- 용수전열판은 봄벌봉군에 적합하도록 만든 제품으로 온도조절기가 고장나더라도 최고 30℃를 넘지 않으므로 안전하다.
- 약균이나 강균에도 좋으며, 추운지역에서 효과가 더욱 좋다.
- 가격 : 3,000원
- 온도조절기 : 13,000원(1~70군 가능)



용수양봉원

☎ (02) 451-3550
조상균

양봉기가지계 전문 판매

- 소상 10매무창 18,000원
- 소상 12매무창 20,000원
- 소광(특제) 800원
- 광식사양기 1,800원
- 채유광 1,000원
- 정화소초광 1,800원
- 격리판 1,2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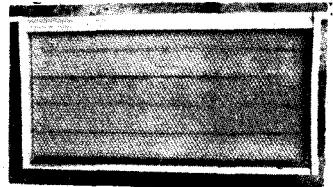


사진 : 정화소초광

상기 판매가격은 임시가격이며 소초광은 전량 밀양양봉원 소초를 사용합니다.

정화양봉원

☎ (0652) 211-4772
74-3263

☎560-200 전주시 덕진구 팔복동1가 79-2. 한 장 회
온라인 · 국민은행 501-01-0082-265 · 우체국401901-0083012
· 농협 501010-52-129746